〈인문사회계열〉

2018학년도 논술전형
모의고사 출제배경 및 해설

SEOULTECH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문제 1]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제시문은 고등학생에게 낯설지 않은 지문이다. 제시문을 읽고 분석하고 종합하여 과정을 정리하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제시문은 문학에서 '다시 쓰기'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패러디의 일반적 특징을 정리한 후 원작과 패러디 작품의 예로 김춘수의 「꽃」과 오규원의 「「꽃」의 패러디」를 소개하고 있다. 패러디는 창작 방법과 그 창작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 두 가지를 모두 일컫는다. 패러디는 원작과의 유사성을 강조함으로써 작품이 패러디의 방식으로 창작되었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패러디에는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차이점이 없다면 아류 혹은 표절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다. 제시문에서는 패러디의 기본 정신을 비판적 수용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패러디의 비판 정신을 구현함과 동시에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원작과 패러디 작품 사이의 차이점이다. 이는 제시문의 요지인데 이 점을 파악하면 김춘수의 「꽃」과 오규원의 「「꽃」의 패러디」를 예로 들어 패러디에서 차이가 왜 중요한지 서술할 수 있다.

2. 예시 답안

빈칸 ①에 들어갈 단어는 '차이'이다. 패러디 작품에는 원작과 같은 점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다른 점도 있어야 한다. 패러디 작품을 읽는 독자는 원작과 패러디 작품 사이의 관계에 집중한다. 원작과 패러디 작품 사이에 공통점이 없다면 독자는 그 작품이 패러디 작품임을 알지 못한다. 차이점이 없다면 독자는 그 작품이 존재해야 하는 의의를 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차이점은 패러디의 근본정신인 비판정신을 구현한다. (나)의 시 「「꽃」의 패러디」는 제목에서 패러디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꽃」에 나오는 시어와 형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의 시 「꽃」을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명백하게 패러디라는 것이 전달된다. 「꽃」은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고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원작을 패러디한 「「꽃」의 패러디」는 개별 이름을 호명한다는 점, 이름 부르기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탐구한다는 점에서 원작 「꽃」과 크게 다르다. 원작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의미가 된다고 했는데 패러디 작품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왜곡을 상정한다고 말한다. 「「꽃」의 패러디」의 시인은 시어를 바꿈으로써 내용 자체를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원작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작품의 예술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3. 출제 근거

『2018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 국어영역:문학』, EBS, 2017, 15~16쪽.

[문제 2]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환경 문제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점차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 문제를 어떠한 윤리적 준칙에 따라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고 있으며, 지구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다루고 있다. [문제 2]는 주어진 텍스트를 적절히 묶어 두 개의 윤리적 고려 사항으로 정리해 내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시문 (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 제시문 (나)는 한스 요나스의 책임 윤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 (다)는 미세 먼지를 둘러싼 사회적 현상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의 일부이다. 제시문 (라)는 사회 정의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 (가)와 (나)를 묶어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제시문 (다)와 (라)를 묶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고려'라는 주제와 연결하여야 한다.

2. 예시 답안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과 자원이 우리 세대의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독일의 철학자 요나스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현재의 삶의 방식을 영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최근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현재의 경향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환경 재앙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즉,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필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불균등하게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미세 먼지 문제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일정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 계층 사람들은 미세 먼지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 문제로 인해 최소한의 생존권과 복지권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이 생겨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3. 출제 근거

제시문 (가): 설동훈 외, 『고등학교 사회』, ㈜미래엔, 2015, 200쪽.

제시문 (나): 조성민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016, 41-42쪽.
설동훈 외, 『고등학교 사회』, ㈜미래엔, 2015, 192쪽.

제시문 (다): 김현주, 「'초미세먼지'의 공습: 빈부격차, 공기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세계일보』, 2017년 4월 6일.

제시문 (라): 조성민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016, 187쪽.

[문제 3]

1. 출제 배경 및 제시문 해설

[문제 3]은 18세기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던 실학파의 다양한 개혁 논의와 그 지향을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 과정에서 제시한 실학의 출현 배경, 주요한 개혁 내용, 개혁의 지향 등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예시문을 제시하였는데, 일부는 교과서에서, 일부는 실학자들의 저작에서 발췌하였다. 제시문 (가)는 정약용의 『다산시문집』 권2에서 발췌한 것으로 국가 붕괴의 위기에 봉착한 조선의 상황에 대한 다산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한국사』에 제시된 토지, 부세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익의 한전론, 정약용의 여전론과 정전제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제시문 (다)는 박제가의 『북학의』 중 상공업 진흥과 중국과의 문물 교류를 통해 국력을 신장시켜야 함을 주장한 부분을 발췌하였다. 마지막 제시문 (라)는 실학자들에 의해 전개된 국학 연구의 발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는 실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비판적 세계 인식이 민족 주체성의 자각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2. 예시 답안

18세기 조선 사회는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가)에 드러나듯 토지 제도가 문란하였으며, 부세의 징수가 편중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에 백성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동시에 국가 재정도 악화되어 국가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봉착하였다. 이에 강도 높은 사회 개혁을 목표로 실사구시에 기반한 실증적 학문 경향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실학이다. 실학자들은 농민 생활과 부세 수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및 부세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나)에 보이는 이익과 정약용의 토지 제도 개혁은 토지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자영농을 육성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당시 개혁론 중에는 북학파를 중심으로 상업의 진흥과 대외 교역의 확대를 주장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의 저자는 조선이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부를 창출해야 하며, 양국 간 문물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중국은 물론 서양의 이기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재 양성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학자들은 조선의 역사 전통과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조선 개혁의 근간임을 인식하였다. (라)에서 조선의 역사, 지리, 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개된 논의는 조선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국학의 근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출제 근거

(가) 박평식 외,『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제5권, 가람기획, 2015, 376쪽
(나) 한철호 외,『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4, 156~159쪽
(다) 박평식 외,『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제5권, 가람기획, 2015, 377~378쪽
(라) 한철호 외,『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2014, 156~159쪽